

# 국제화시대 발맞춰 유화산업 경쟁력 견인

## 41개 회원사 환경 문제 및 시장 변화 공동대응

경기부진속 지난해 9.9%성장 견인차

석유화학공업은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인 관계로 그 제품의 수요는 연관산업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는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기가 부진하였음에도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 3대부문을 기준으로 8천6백52만3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9.9%의 신장이라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각 업체들이 수요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포장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합성수지부문의 LDPE, HDPE, PP, PS, PVC 등 범용수지는 7%의 신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 13%증가에 비해 6%가 낮아진 것으로 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했으며, 수요산업의 수출둔화, 포장재 수요의 감소, 가공산업의 해외이전, 저가 가공품의 수출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HDPE의 경우 92년에 가수요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 21%라는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었으나 93년에는 이의 반동 및 특별한 수요증가 요인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1%정도의 낮은 수요성장을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정환 회장

기록했다.

그러나 LDPE, PP, PS 등은 6~7%의 성장을 보였으며 ABS의 경우 가전제품과 같은 수요업체의 수출회복에 힘입어 16%라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또한 PVC도 건축부문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11%의 수요증가가 있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은 수입대체산업으로 건설이추진 되었던 당시의 기조가 지속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은 상당기간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수출되었고 많은 양이 수입됐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시설 능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수출입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데 합성수지 등은 수입이 감소되고 수출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발전 노력·청년으로 성장

이같이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는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요촉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이정환)가 다음달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1974년 7월 24일 초대 이정림 회장의 11명이 발기해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41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회원사의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업무부와 기획조사부의 2개부, 4개과로 구성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부에는 총무과와 업무과, 기획조사부에는 기획과와 조사과가 있다.

총무과에서는 협회의 인사, 경리 등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보고 있으며, 업무과에서는 대정부관련 건의, 각종 홍보나 환경 안전에 관한 일을, 기획과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관련 기획, 자료정리·제공업무를, 조사과에서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펼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석유화학공업의 생산시설 능력, 품목별 가동률, 수급실적 및 전망을 조사·분석해 업계에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기술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도입,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석유화학회지, 석유화학동향, 석유화학제품 가격동향 등 7종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였으며, 주요국별 석유화학제품 관세율(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국), 신경제 100일 계획과 93년도 재정금융정책방향, 알기쉬운 반덤핑제도 등의 간행물을 수시로 발간하여 업계의 홍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 'Responsible Care' 운동 적극 노력

특히 화학산업에서 사용·제조되는 유해 위험물질의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을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자발적 관리활동을 위해 'Responsible Care'라는 간행물을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운동의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첫째, 환경관리를 경영목표의 하나로 책정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기업구성원 모두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둘째, 생산·수송·사용·폐기에 있어 환경·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운영에 노력을 경주한다.

셋째, 환경·안전·보건의 확보를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갖추어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



▲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93동아시아 석유화학공업회의

하도록 한다.

넷째, 종업원, 고객, 지역주민, 관련 인사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이에 대처한다.

다섯째,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안전한 사용, 수송 및 폐기에 대하여 충분한 지문을 한다.

여섯째, 환경보전과 에너지, 자원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청정기술의 연구와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한다.

여덟째, 인근기업과 상호협조하고 업계가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8가지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행지침으로는 비상사태(중대한 환경오염사고나 화재폭발 등 인명살상 사고)시 지역 및 인근 기업체간의 비상연락, 대피, 피해확산 방지, 복구 등 제반행동 계획을 수립, 공동대처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원료, 생산공정이나 수송과정에서 예상

되는 오염물질의 제반 감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점차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와 발생량 감소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 분리폐기와 재활용 확대, 공정폐기물의 감소, 법적 처리기준의 준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정해 놓고 있다.

이 운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환경개선운동, 기존의 환경업무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지역주민과의 공조체계를 구축,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창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인 정부규제 유도,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통제 노력으로 사고방지, 민원감소, 생산성 향상, 국제적인 환경이슈의 해결, 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로 제품시장 유지,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기업이미지 구축,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환경관련 종사자 자긍심 향상,

지역과 회사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다.

### 세계화의 국제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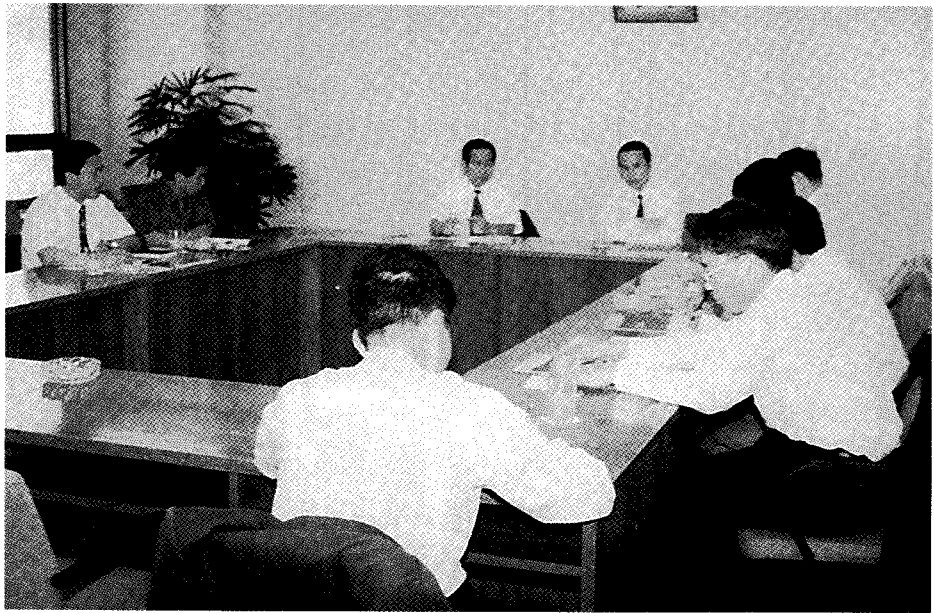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국제협력 추진행사로써 제15회 93동아시아석유화학공업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초 원료, 합성수지, PVC,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화학품 등 6개로 구

분된 분과위원회별 토의와 함께 한국·일본·대만 3국의 공동커뮤니케이션서명 및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한 대만의 국제유화제품 반덤핑 제소와 관련 협상대표단 파견, 환경 관련 해외 유관기관(ACIC, JPIA, ICCA 등)과의 정보교류, 영국의 TECNON 및 IRSG, 미국의 CHEM SYSTEM, SIR 등 유관기관과 자료의 교환도 이루었다.

이와함께 중국 강소성 소주시 화학공업국 Yang Zhen Hua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석유화학관련 대표단 일행의 협회 방문에서 한·중 석유화학산업 협력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업계의 애로 및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서는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금지조항 가운데 EPS포장재 사용금지 규정과 관련해, 단계적인 사용감소 및 회수의무 부과로의 전환을 요청해 포장재 사용감소 강화를 위해



▲ 중국 석유화학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필요한 조치라는 회신을 받아냈으며, 산업원료용 납사의 수입자유화, 직업훈련 부담금 인하에 대한 건의를 통해 94년도 직업훈련 부담금의 부과는 93년 수준으로 동결시킨 바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건의에서는 부담금 요율이 92년도 수준(0.1% 부담)을 유지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완화는 곤란하다는 회신과 94년도 훈련비율은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훈련비용 인정범위는 일정비를 확대되도록 했다.

잠정세율 및 할당관세 계속 적용에서는 종래 잠정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할당관세는 벤젠을 제외하고 계속 적용토록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상공자원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공업진흥청, 해운항만청, 무역협

회, 진경련에 각종 정책의 올바른 시행과 자료의 협조를 요청, 업계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PE, PP업계 수출실무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해외시장 동향, 가격동향, 반덤핑 제소동향 등을 논의했으며, 이밖에 노사관련 업무의 추진, 환경·안전·보건업무추진, 사무능률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 국내외 시장동향 파악으로 업계에 도움

올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은 생산·출하·재고, 수급 및 가동율 등 국내 석유화학공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의 국별, 지역별 각종 동향을 상세하게 조사·분석하여 국내외의 시장동향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동향, 각종 통계 등

을 수록하여 홍보하는 회지 및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자료 가운데 필요한 자료, 외국자료, 업계 전체 동향파악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자료 시리즈의 확대,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는 석유화학공업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의 확대, 특히 통상마찰 방지를 위한 대응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94동아시아석유화학공업회의에 참가하여 외국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수출확대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별 수출입 동향, 정보교환의 확대, 수출 시장 조사단 구성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지난해 마련한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발전촉진, 회원 상호간 친선증진, 외부인사초청 간담회, 정부 위임사업의 효율성 집행, 사무능률의 개선, 봉사활동 적극참여 등 각종 사

업을 수행 또는 준비중에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100%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회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이지만요”

업무과 김현권 차장은 “지류를 많이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산림자원의 파괴는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쇼핑백의 예를 보더라도 지류에 비해 필름류의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점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라며 “석유화학제품의 사용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독히 강하다” 고 말했다.

실제 EPS의 경우 외국에서의 규제는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회수체계가 잘돼 있는 만큼 다른 제품으로의 재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페플라스틱 등으로 옷걸이, 완구류 등에 적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 최대의 선물인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제품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무한한 자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류에 따라 환경

오염의 주범인양 인식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생각이라 판단된다.

당장 석유화학제품이 줄어 (단위: 건)들거나 없어진다는 가정을 해보면 그 결과는여실히 나타난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석유화학제품이 환경에 친숙하고 유용한 것이라는 홍보의 강화와 함께 업계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선진 기자



◀ 주민·종업원 친선체육대회, 주민 공장초청 설명회 등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펼쳐 지역 주민과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